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얼마 전에 한 동료 교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시골에 사는 노부모님이 모처럼 상경해서 바닷가로 모시고 가 싱싱한 왕새우를 대접해 드렸더니 별로 반기는 기색 없이 한 마리를 겨우 잡수시더라는 것이다. 왜 많이 드시지 않느냐고 물으니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었던 몰라도 80세 가까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건강을 챙기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조금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반성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없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노인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일 것이다. 그러나 각종 매스컴의 지나친 건강 정보는 자칫 '건강 신드롬'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아니 우리 사회에는 이미 건강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고 봐야한다. 위의 '왕새우 사건'이 그 한 예이다.

넘치는 건강 정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쏟아내는 정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모두가 100% 검증된 확실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이다.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위암이나 직장암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녹차를 많이 마시면 위염이 생기기 쉽다는 보고도 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35% 줄인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1995년 코호트 연구), 전립선암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2006년 코호트 연구)

않는 신인류(新人類)가 출현한다는 것이 구)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사람들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건강 신드롬의 대열에 끼어든다. 장자(莊子) 천지(天地)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요(堯)임금이 화(華) 땅을 시찰할 때 그곳의 봉인(封人·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오래 살고 부유해지고 자식이 많기를 빈다고 하자 요임금은 이 모두를 사양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자식이 많으면 걱정이 많고 부유하면 귀찮은 일이 많으며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라 대답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물론 장자 사상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겠지만 문면(文面)의 뜻만으로도 일정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다. 이것저저 가려서,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균수명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신(神)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왕새우도 가끔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장자 어느 날 왕새우에도 노화방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성공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사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자

삼성그룹 이견회 회장의 생활가전 해외 이전 시사 발언으로 삼성 광주전자의 이전 여부 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역 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 광주전자가 이전한다면 지역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삼성 광주전자 관계자가 12일 "일부에서 우려하는 광주공장 축소나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이전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을 보인다.

이런 삼성 광주전자의 이전 논란은 광주·전남지역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이익창출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을 보다가 많이 낼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닌다. 삼성 이 회장도 생활가전사업 분야가 국내에서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기업에 애국심이나 애항심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어

학교폭력 근절대책 내실있게 추진해야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새학기를 맞아 6월1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신고 및 단속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을 구성하거나 가담한 학생, 현금 등을 빼앗은 행위, 교내의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집중단속하되 자진신고를 유도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당연하다. 학교폭력을 위협수위를 넘어섰다. 폭력이 흉포화·조직화되면서 집단 따돌림과 구타, 갈취 등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인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미래 유망 직종이 바뀌고 있다. 과거 관·검사·변호사, 의사 등 이른바 '사'자 돌림 직종이나 교수 등 현재의 선호 직종이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성취도, 자기발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신종 직종들이 대거 전면에서 나서는 게 될 모양이다.

한 취업포털이 최근 학교와 연구소, 기업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취업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5년 후 유망직업 베스트 10'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관·검사, 의사는 물론 '신이 내린 직업'이라는 공기업 종사자 등 현재의 인기 직종은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고, 다소 생소한 이름의 직업군이 앞 자리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운용'이 평균 총점 42.09(50점 만점)으로 1위에 오른 것을 비롯 자기발전성과 직업전문성, 업무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경영컨설팅'과 '실버시터'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상담전문가'로 고용평등과

유망직업 변화



다. 직종이 다양해지고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 반증인 셈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유망직업의 개념이 안정성, 규칙적 근무시간에서 성취도, 자기발전성 쪽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상의 반영이 아닐지...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NGO 칼럼

서정훈



무안·신안 국회의원보궐선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씨가 출마가 회자되고 있다. 지역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선거상황으로 돌입한 상태라던 여기에는 상당한 착각이 있어 보인다. 향후 나타날 후유증의 심각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번 김홍업씨 선거 출마의 문제의 식은 비리관련 후보 전력만이 아니라 최근 DJ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이 닿기 때문에 더욱 문제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 '정치 불간섭'이라는 국민적 합의 사항을 파기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실정치 여건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 표방이 깨

따돌리는 무 공천까지 굳힐 판이라니 대단하다. 추측컨대 현재의 이합집산의 정치구도아래서 대선과 차기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한 동교동계의 계산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동교동계가 이 지역의 연고를 다루는 민주당도 열린우리당도 모두 입막음하는 완벽한 정치력으로 김홍업씨 길을 닦고 있는 것이다. 무섭다. 재기의 발판을 노리는 실력자들의 본격 가동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일조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아무리 인물론을 탓하더라도 김홍업씨가 적임자라고 말 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홍업씨는 고향에서 보다도 고

잘못 계산된 김홍업씨 출마

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갈수록 DJ의 존재론이 커가는 상황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J가 밝힌 범여권통합 신당론이 그렇다. 이러면 YS, JP, 이회창이 가만히 있었는가. 심지어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각자마다 역할 론을 들고 나설 것이 두렵기까지 하다. 실로 격정적이다. 정치적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구시대 인물들이 할거하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 한국정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김홍업씨 선거 출마 자체보다도 그 뒤에 깔려있는 정치적 배경과 계산의 위험성을 우려한다. 알려진 대로라면 당초 김홍업씨 개인은 이번 선거 출마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 정치 상황을 계산적으로 두드리는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의 작용으로 보선 출마가 결정되었다 한다. 그것도 무소속이라는 아주 그럴 듯이 절묘하면서도 완벽한 정치력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근접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공무원 시험만이 살길이 아닌 사회가 됐으면

대학 신입생인 조카에게 "대학 생활 할만하니"라고 물었다니 학과 선배들로부터 "우리 대학은 그다지 명문대학도 아니고, 학과도 취업이 잘 안되는 과이니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너무 서글픈 현실 아닌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소신있게 공부하라는 조언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돼 버렸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전공 과목에 대한 공

부도 시작해보기 전 학과 공부 아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유학을 다녀올 형편이 안 되고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이 최선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깨졌으면 한다. 공무원이 살길인 나라, 대학 나온 사람은 중소기업은 살아 있지 않다면 무조건 공무원 환원으로 달려가는 사회는 결코 국제 경쟁에서 이길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대학 새내기들이 4년 뒤에 공무원만이 살길이 아닌 사회가 됐으면 한다. ▲이주은·광주시 서구 마름동



외계인 같은 칠면조



동물원에 근무하기 전에는 칠면조를 외국에서 크리스마스 식탁에 오르는 고기 정도라는 것 외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원에 온 뒤 자주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 저렇게 희한한 새도 다 있구나.'라는 것이다.

칠면조는 공작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는 색깔의 변화는 마치 불꽃 놀이를 보는 것처럼 현란하다.

흥분하거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름 그대로 일곱 번 이상 마구 변한다.

앞컷이 아닌 수컷들에서만 이 현상이 일어난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칠면조에게 유독 특별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솔직히 칠면조가 변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보다는 해괴하다. 평상시 그들의 목 피부는 마치 핏기 없는 것처럼 붉거나 푸르스름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새빨갭게 부풀어 오르고, 부리 위의 작은 혹이 갑자기 쪽 늘어났다 처치를 반복한다.

더불어 온 몸의 깃털이 일어서는 데 칠푼듯 붉은 몸이 마치 광택을 바른 것처럼 청동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보고 싶으면 외계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모양뿐만 아니라 짧고 하얀 피가 있는 꼬리 깃을 치켜세우면서 '북, 북'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데 이 소리도 어디에서 나오는 지 모르겠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공무원 시험, 문제·정답 공개로 투명성 높여야

동생이 얼마 전 7급 공무원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다. 시험을 치른 동생은 왜 정부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보안상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십만 수험생들이 치른 문제를 공개하는데 보안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수능시험도 출제 문제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시험을 치른 뒤 일주일간 동안 오류 확인과 정정 시간을 둔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도 투명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라도 문제와 정답 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는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있지만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만 유일하게 문제 공개를 안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몇년간 준비한 시험이 1~2 문제에 의해 답락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행정당국에서 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복원, 재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아는가.

또 문제 오류를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 항상 억울한 피해자와 엉뚱한 합격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금숙·광주시 서구 능성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details.